

Buysignal 이슈 토의: SVB사태

10기 3조/2023.03.24.

- 서론

한국은행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다수 은행에서 예금 인출 요구가 갑자기 쇄도(Bank-Run)하여 은행의 자금 지급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앙 은행 등이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정의한다. 현재 SVB 사태를 필두로 미국 지역은행 외에도 CS 처럼 세계 주요 은행들로부터 매우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루가 달리 들려오고 있다. 물론 각 은행의 특이점과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의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약한 고리들"의 파산에는 Fed 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사태를 정리하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고자 해당 이슈 토의를 작성하게 되었다.

1. 파산 은행과 SVB 의 공통점

이번 SVB 사태의 주 원인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SVB 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된 것에는 3 가지 특이점이 있다. 연쇄적인 은행 파산 신청을 목격하며, 파산의 수순을 밟은 여타 은행과 SVB 가 지니는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유동성에 취약한 자산군에 보유자산의 집중적인 투자 # 실버게이트 캐피탈 # 시그니처 뱅크
- (2) 주요 고객의 특이성: 스타트업 혹은 고액 자산가 등 여수신 비율이 낮음 # 퍼스트리퍼블릭
- (3) 부실 대출이 부재하며 대출 경쟁 격화 # 크레딧 스위스*

(1) 유동성에 취약한, 가상 자산 exposure 가 컸던 은행

실버게이트 캐피탈

- 결론: 8 일부로 암호화폐 영업을 종료하고, 은행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절차 시작함.
- 코인베이스부터 FTX 까지 암호화폐 상위 기업들과 손잡고 성장했으며 예금 기반의 90%가 암호화폐 관련이었음.

- 리스크의 경우, 주요 고객사인 FTX 의 11 월 붕괴 기점으로 4Q22 에만 81 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을 겪음.
- 결정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늦을 것이라고 발표와 함께 코인베이스, 서클, 팍소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고객들의뱅크런.

시그니처 뱅크

- 결론: 12 일에는 뉴욕주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DFS)가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음.
- 실버게이트와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 중심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며, 2001 년 설립되어 2018 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 자산을 상품으로 편입해 산업용 부동산과 가상자산(3Q22 기준 예치금의 1/4 (\$16.5 bn)이 가상자산 관련)이 주 사업 분야.
- CNBC 보도에 의하면 뱅크런 이후 임원진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취했으며, 12 일 기준 일단락되었다고 내부 임원간에는 합의가 있었음.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해결불가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DFS 가 개입해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함에는 규제당국이 시그니처를 필두로 가상자산에 대한 "anti-crypto"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 여수신 고객이 구조적으로 적은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 결론: 정부는 대형은행을 설득해 FRB 에 \$300 억 달러를 예치해 민간자본을 통한 구제 금융.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약 10% 상승했으나, 시간 외 거래에선 다시 -16.98%로 시장의 잔존 불안 반영.
- 미국 14 위 규모의 은행으로, 마크 저커버그 등 예금자의 대부분이 지역의 기업·부유층으로 규모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이 많아, 스타트업, 벤처를 주고객으로 둔 SVB 와 영업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특징.
- 16 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11 개 대형은행은 이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총 300 억 달러 (약 39 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주요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에 자금을 투입하며 신뢰를 우선적으로 보임으로써, 시장이 안심할 만한 신호를 제공함.
- 주요 쟁점: WSJ 은 "SVB 파산 이후 중소은행에 맡겨둔 돈을 대형은행으로 옮기는 예금주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대형은행들은 이로 인해 유입된 돈을 다시 중소은행에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함.

(3) 부실 대출이 부재하며 대출 경쟁 격화

크레딧 스위스

*CS 의 경우 SVB 와 본질적으로 여러 측면에 있어(업력, 사업구조, 규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결이 많이 다른 사안이며, SVB 와 공통된 사안 중심으로 정리함.

- 결론: CS 위기는 결국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 회사의 지분을 과도하게 사용해 공격적 투자를 반복적으로 집행(이로 인한 금융기관 사고 발생: 아키고스 사태) 그리고 내부 문화 역시 매우 단기 성과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함.
- 2 년 연속 대규모 적자는 물론, 은행 고객의 이탈이 있었음. 지난 주 일평균 예금 14 조원 인출, 도매 비즈니스에 있어 타 금융기관/기업의 counterparty 거부, 임직원의 퇴사 등 결국 스위스 당국의 주관 하에 UBS 에게 인수되는 결말을 맞음. 인수 후에도 코코본드 등 여러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었음이 계속 밝혀지는 중. 결국 SVB 와 유사점은 두 은행 모두 대출의 부실이 주 원인인이 되기보단 대출 경쟁의 격화 과정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자산에 대부분을 투자함.

물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그렇듯 그 속도와 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건이 시스템적인 리스크까지 걸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장단기적 영향 파악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은행의 투자흐름 방향, 규제 정책으로 인한 모럴해저드 발현 가능성 등과 관련된 향방 역시 비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해당 토의는 시장의 반응 - 당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응, 사태 - 대응책 조합의 장단기 여파, 정책기조에 대한 해석 순으로 다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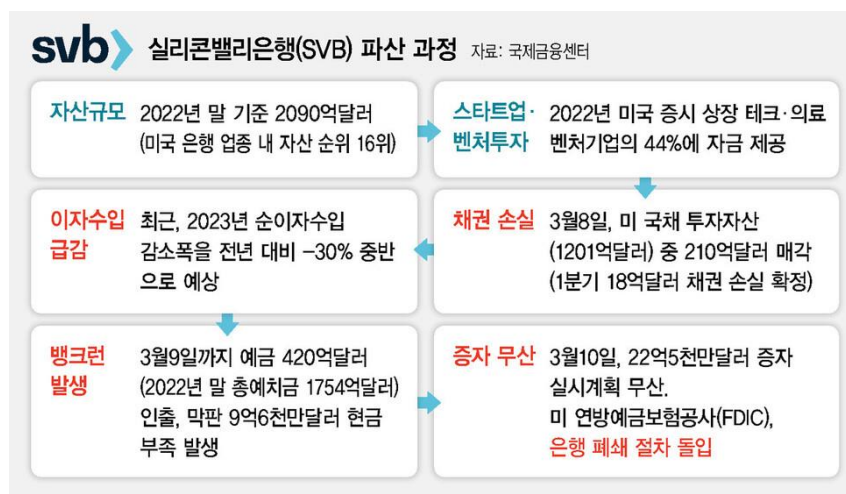
- 본론

2. SVB 의 파산 과정과 시장의 반응



SVB(Silicon Valley Bank, 실리콘 밸리 은행)는 미국에서 16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으로, 고객의 대부분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2020 년-2021 년)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높은 유동성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 벤처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남은 자금을 SVB 에 예금했다.

동일 기간 SVB 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2020 년 금리가 0.5%까지 떨어진 미국 국채는 2023 년 3 월 1 일 기준 11 년만에 4%를 상회하며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동시에 SVB 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 국채는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미국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SVB 에 예금해 두었던 자금을 되찾기 시작했다. 예금 인출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산의 절반 상당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던 SVB 는 18 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3 월 8 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패했다. 시장은 SVB 의 행보에 과민반응을 보이며 3 월 9 일 하루 동안 420 억 달러(전체 자산의 약 20%)를 인출하는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만에 굉장한 수준의 인출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인출의 편의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뱅크런 사태의 부수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뱅크런 사태로 SVB 는 파산했으며, SVB 의 주가는 급락한 이후 주식은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3. 당국의 대응

이슈가 터진 이후 시장에 큰 불안감이 감돌았으나, 미 당국의 빠른 정책대응으로 단기적인 큰 충격은 막은 듯한 모양새다. 만약 대응이 늦어진다면 은행산업 전체로 불안이 전이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미 당국이 고객들에게 SVB 의 예금에 대한 전액 보증을 약속하고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는 빠르게 잠식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소&지역은행 등 약한 고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후 일어날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일본, 중국, 브라질, 독일 등 각 정책당국은 자국 은행산업의 '건전성 양호' 메시지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SVB 에 자금노출이 있던 각 기업들 역시 금번 사태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후 SVB 에 이어 Credit Suisse 와 First Republic 도 위기를 겪었으나, 어느때보다 빠른 정책대응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정책대응]

미국	• 미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2 일 공동성명을 통해 SVB 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한 고객의 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힘(기존 예금보호 한도는 25 만 달러) • BTFP 를 도입하여 미 국채, MBS 등 적정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필요시 최장 1 년의 단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 바이든 대통령은 예금보호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조 • FED, 대형 은행들에게 적용해오던 규제 강도를 중소 은행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수준에 대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이 포함 • Bank of America, Citigroup 등 11 개 대형은행들이 제 2 의 SVB 로 지목됐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300 억달러를 지원(예금 예치 형태)하기로 결정
그 외 국가	영국 • HSBC 가 SVB 영국 지사 인수를 발표. 예금은 납세자 지원없이 보호될 것이며 SVB 예금자가 정상적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독일 • '금융감독청은 SVB 독일 지점이 22 년말 자산 총액은 약 7.9 억유로로 대출업무를 수행하지만 예금은 취급하지 않아 자국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SVB 는 파산 전 EU 27 개국 중 독일, 스웨덴, 덴마크 3 개국에만 진출했으며 진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중국 • SVB 와 연관되어 있는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자산운용사 등은 공시를 통해 전체 보유현금 대비 SVB 예금액이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발표 • 홍콩 금융관리국은 SVB 가 홍콩에서 은행 업무를 하지 않고 대표사무소만 운영했으며, 금번 사태가 홍콩의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 스위스 • Credit Suisse 는 중앙은행(SNB)으로부터 최대 \$540 억 (¥500 억) 규모의 차입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선순위채권에 대한 환매 결정 브라질 • 하다드 재무장관은 SVB 사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중앙은행 총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 또한 재정·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 캐나다 • 재무장관, 감독기관과의 미팅 후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 능력도 높다고 언급 일본 • 재무장관, SVB 폐쇄와 같은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은행산업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 EU • 라가르드 ECB 총재,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08 년 금융위기에 비해 훨씬 견조하며 ECB 는 대출기관에 긴급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
--	--

4. 단기 충격이다 vs 장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미 은행 역사상 2 위 규모인 SVB 의 붕괴 이틀 뒤 뉴욕 시그니처은행 파산,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 중소 지역은행들의 연쇄 위기설로 번졌다. 미 연방 당국은 '시스템 위기'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2 일 정부는 SVB 예금 전액 보장을 발표했고, 16 일 미국 11 개 은행은 보유자금으로 총 300 억달러를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예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JP 모건과 씨티그룹·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가 각 50 억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각 24 억달러를 넣는다.

SVB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각국 정부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금융권에 빠르게 자금을 공급하는 등 확산을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사태가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단기 충격이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에 위협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SVB 파산 위험이 2008 년처럼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첫번째 근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성'이다. 실리콘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2,090 억달러로 미국 16 위 수준에 불과해, 미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규모는 아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신생 기술기업'이라는 특정 고객층에 집중한 것도 일반 은행과는 다른 점이다. 통상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전반적으로 섞어 금리 인상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 관리가 원활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특수하게 포트폴리오 구성과 예금주 구성이 벤처기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3. SVB 자산 규모 및 구성비 추이

2021년 자산 급증 및 만기보유증권 비중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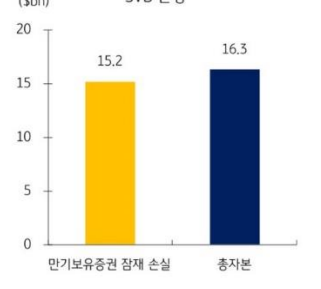


그림 4. SVB 부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2021년 부채 급증, 2022년 예금 감소



SVB 은행



두번째 근거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다. 미 의회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재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도입하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했으며, 미국 경제자문위원장 역시 은행 시스템이 10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파산은행의 경영진들이 다시는 은행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한 만큼,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 하에 은행이 경영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도드-프랭크법의 3가지 핵심규제

볼커룰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 등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프랍트레이딩을 제한하고(Tier1자본의 3%)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을 설립, 투자해 은행이 간접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
Bail-in 제도	대형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대형은행들에 대해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주주환원책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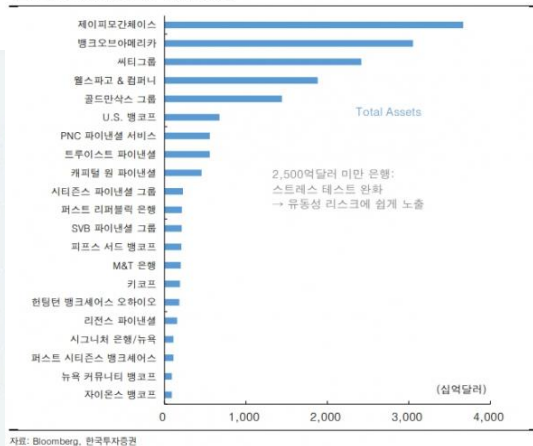
출처 : 네이버

장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반면, 이번 SVB 사태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중소형 은행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재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도입했으나, 2018 년 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은행의 자산규모 기준을 500 억달러 이상에서 2,500 억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대부분의 은행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실리콘밸리뱅크처럼 특정 업종에 집중한 중소규모 은행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리콘밸리에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은행의 파산으로 신생 기술기업까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림 1] 미국 대표 은행 총자산 규모



도드-프랭크법 규제 완화 개정안 주요 내용

자본규모별 대상은행	내용
2500억달러 이하	SIFI 규제 적용
1000억~2500억달러	SIFI 규제 부분적 면제, 18개월 유예 후 스트레스테스트 면제
1000억달러 이하	SIFI 규제 면제, 스트레스테스트 폐지
100억달러 이하	볼커룰 면제
50억달러 이하	보고 내용 및 규모 축소

*자료: 미국 재무부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가자

더불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한 은행의 예금이 3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미실현손실이 5 분기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은 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세계 3 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역시 미국의 전체 은행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는데, 이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미국의 잇단 중소 지역은행 붕괴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올해 중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은행업계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벤처의 위기'로 경제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벤처기업 투자 이후 많은 금융 투자기구들이 벤처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벤처기업은 우리와는 달리 대장인 주류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을 끌어가는 구조인데, 이번 사태로 큰 벤처기업 하나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부실이 다시 연쇄적으로 중소형 은행을 압박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2021 년 기준 스타트업 수는 6 만 3 천여개로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나라이며, 그 다음으로 스타트업이 많은 9 개국의 스타트업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산업체들의 운영 방식이 급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목 받는 스타트업 산업의 분야도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더불어 총 취업자에서 신생이나 벤처가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벤처의 위기는 곧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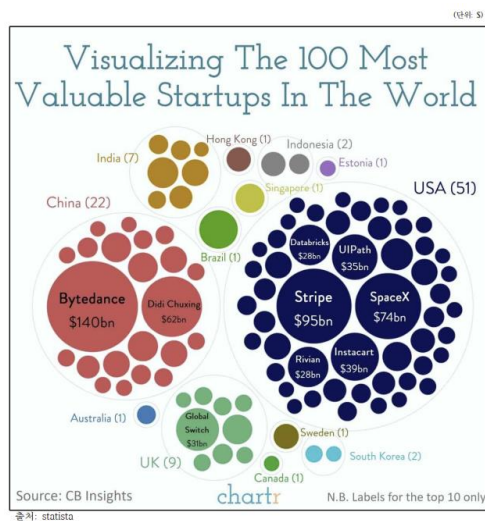


Table 2. Net Employment Change, Gross Employment Gains and Losses Overall, and Gross Employment Gains and Share of Employment Gains From Opening/Startup Establishments, 2010-2020

Year	Net Employment Change Overall	Gross Employment Gains Overall	Gross Employment Losses Overall	Gross Employment Gains From Opening/Startup Establishments	Share of Gross Employment Gains From Opening/Startup Establishments
2010	(2,684,236)	10,075,086	(12,759,322)	3,236,266	32.1%
2011	1,908,878	11,629,458	(9,720,580)	3,334,090	28.7%
2012	2,668,299	12,215,725	(9,546,426)	3,514,059	29.1%
2013	2,126,885	12,044,757	(9,917,872)	3,491,509	28.4%
2014	2,274,379	12,282,246	(10,007,867)	3,582,256	29.2%
2015	2,717,966	12,833,679	(10,115,713)	3,691,014	28.8%
2016	2,511,589	13,167,936	(10,656,347)	3,773,906	28.7%
2017	2,032,665	12,953,630	(10,920,965)	3,797,214	29.3%
2018	2,168,233	13,116,333	(10,948,100)	3,757,496	28.6%
2019	1,844,818	13,133,753	(11,288,935)	3,757,569	28.6%
2020	406,001	12,751,017	(12,345,016)	3,775,614	29.6%

Sources: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Table 1-A-E: Annual gross job gains and gross job losses, by age and average size of establishment," at https://www.bls.gov/bdrnlage_3e_new/age_new_size_20201_11.xlsx.

- 결론

5. 정책대응에 대한 시사점

SVB 파산 사태가 시그니처 은행 파산, CS 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UBS 의 CS 인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사태에 대해 예금자 보호는 하되, 구제금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며 뱅크런이 일어나고 사태가 벌어진 만큼, 미국 정부는 예금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 총력을 쏟아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정부의 예금자 보호 조치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유동성 공급 문제는 연준이 BTFP 를 발표하고, 대형 은행들이 중소 은행에 자본을 예치하며 급하게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예금 보장 방식에 대해 "납세자의 돈이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면서 구제금융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건전한 은행에서 부실 은행으로 돌려막기 대출을 해주는 유동성 공급 방식은 사실상 구제금융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과 함께

대두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미 당국의 대응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6. 각 경제 주체들이 나아갈 방향

이번 SVB 사태는 미 연준의 정책과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들을 포함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연준

우선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난 1 년간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양적긴축을 시행한 연준은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서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3 월 초까지만 해도 22 일 FOMC 에서 빅스텝(금리 0.5%p 인상)을 밟을 확률은 70% 이상으로 예상되었지만 SVB 사태를 겪으며 결국 베이비스텝(금리 0.25%p 인상)을 밟았다.

은행

그리고 은행은 수익구조와 포트폴리오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자수익에서 적정수익을 취하며 비이자수익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추구해야 할 사업 방향이다. SVB 가 비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미국 장기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은행들은 이자수익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다져 놓으면서 비이자수익의 관리를 해야 한다. 비이자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성격의 업무를 늘리면서 특정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할 경우, SVB 처럼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하며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SVB 사태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은 SVB 와 달리 자기자본비율과 여수신 비율이 높아서 금리 인상에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지만, 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뱅크런을 촉발시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내은행은 이번 사태를 금리상승의 부작용이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뱅크런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특화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특화은행의 예시로 들었던 SVB 가 금융환경과 경기 변동에 취약한 특화은행의 단점을 드러내며 파산하였기 때문에 특화은행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SVB 사태를 통해 금리 인상의 부작용 문제가 드러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멈출 것이라는 의견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연준이 내놓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